

가정예배 · 구역예배

11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이사야 · 에베소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11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이사야 · 에베소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납골시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마땅히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엡 2:3).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를 향해 비춰진 한 줄기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힘보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진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골 3:16).

200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행하신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도 어디선가 세상에 취해
죄의 종노릇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살후 2:13)

2009년 1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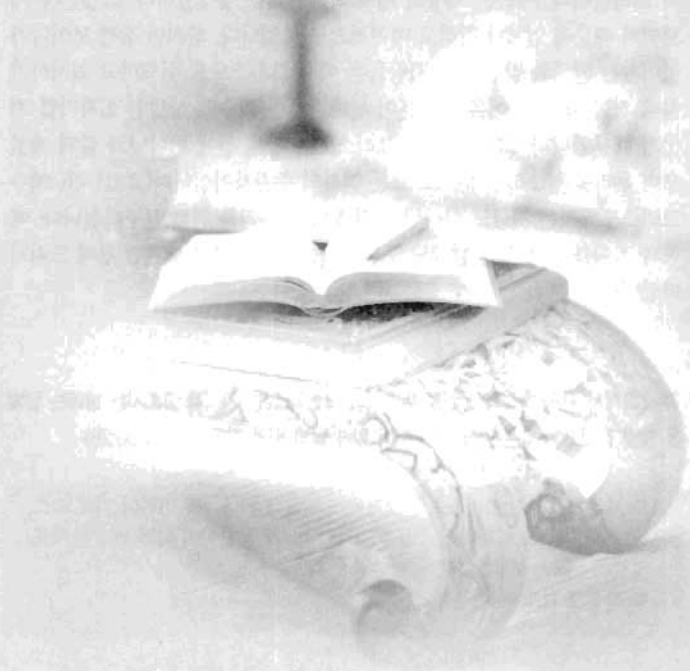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 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유다는 앓수르 침략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위기 시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1~2절). 유다의 죄는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피난처를 삼는지 드러냅니다. 애굽은 세상의 세력과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의지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실패자처럼 죄수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요 1: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배와 집회를 통해 환난 날에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 드리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사 30:2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제7차 성찬식이 되어 영원의 세계를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강력한 애굽을 의뢰하고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대하여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로써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6~7절). 오직 회개만이 대적의 칼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알지 못하고 불확실한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참된 행복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또한 회개는 우리가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 회개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사 31:6)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통해 선민들은 마침내 공의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적인 무지를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1~8절).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심판을 부녀자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면 여자들이 가장 슬퍼할 것임을 그¹ 말하고 있습니다(9~14절).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땅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15~20절).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은 결국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며, 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떠한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믿어야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사 32:1)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로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간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앗수르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는 앗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회복을 예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앗수르에 의해 함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임박한 앗수르의 침입을 말하면서 앗수르를 저주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1~6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7~16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찬양하였습니다(17~24절).

이사야 선지자가 앗수르의 침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원히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결국 고난에 처할 때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단호한 신앙의 자세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성도는 세상의 고난보다 그 고난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총만하게 하심이라"(사 33:5)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열방이 당할 심판에 대한 설명(1~15절)과 함께 이 예언이 임하게 되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거듭 말함으로써(16~17절) 심판의 진정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심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에 임하는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최후 심판 역시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엄중하고 확실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자 그것이 적용되는 예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님의 자비함에 틀림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알고고도, 또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나 나라에만 예수님의 가혹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로우심과 무한한 사랑을 보여 주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할 때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후 심판이 회개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사 34:8)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과 종말론적 새 나라의 환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흑암 속으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취옴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쁨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으며(1~2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방을 두려워하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3~4절). 또한 유다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5~7절). 특별히 포로들의 기적적인 귀환의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받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8~10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소망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입증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죄악 된 상황 등으로 전혀 구원 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참 소망을 얻게 되었듯이, 장차 모든 자연만물이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이다”(사 35:10)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북 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는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 백성에게 항복할 것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들의 협박 내용은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므로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랍사게가 부르짖는 협박에만 함몰되어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감행한 종교 개혁의 의미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토대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신이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리라는 랍사게의 회유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영적 무지를 확연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당할 고통을 미리 예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의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라는 말과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는 말은 매우 날카롭고 도전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비난에 찬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할 그 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사 36:21)

기도 제목 ① 임미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앗수르의 위협적인 말을 접하게 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회개의 모범을 보이고, 이어서 신하들에게도 회개하도록 촉구했으며, 나아가 선지자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1~7절). 때마침 앗수르는 구스 왕의 침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늦추진 않습니다(8~13절). 산헤립의 위협에 맞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야말로 이방인이 의지하는 거짓 신에 대해 하나님의 권능이 월등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14~20절). 이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는데 그것은 오만한 산헤립을 향한 책망과 저주,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21~38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마음을 찢으며 유다를 위해 간구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삼하 7:12).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당신의 지혜로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사랑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약함을 아뢰는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사 37:20)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사야 선지자는 병든 히스기야를 방문하여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1절).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에 대한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2~3절).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 나 연장시키시고, 앗수르로부터의 보호도 약속하십니다(4~8절). 또한 그 징조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병이 들어 심신이 약해졌을 때와 큰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얻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주님의 인자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심신이 약해질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다할지 모르기에 하루 하루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6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들입니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우리를 붙들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사 38:1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다가 포로되는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으로 므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서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 궁중의 모든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1~2절). 이사야 선지지는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는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심판을 예언합니다(3~7절). 다만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에는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8절). 이는 믿음에 따라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은 히스기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차서 은근히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 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매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죄악의 길로 접어드는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도 교만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사 39:5)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지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및 귀환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관한 주권과 권능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한 것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재하실 여호와와 의 길을 예비하라는 선언 및 확실한 보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1~11절). 또한 중반부는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유일성과 역사에 대한 초월성 및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강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12~26절), 후반부는 현재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직 권능의 여호와를 전적으로 앙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27~31절).

본문 가운데 '위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기도 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심판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며, 구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잠시 징계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에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잊거나 놓아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이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8~9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되시며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그분의 허락 하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력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사 41:10)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 · 납골시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 장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1~7절).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소경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갇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며, 굶은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을 피해 다시 예전처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7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이미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 귀머거리 된 자, 흑암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해방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물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사 42: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찬양위원회와 9개 찬양대, 2개 연주대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서는 무가치한 종들을 모으시고 그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소유로 삼아 끊임없이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돌보십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어 얻게 된 구원은 더더욱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은혜의 제공자이십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마다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며,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 43:25)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조상하셨음을 강조하시며, 이스라엘의 상한 심신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길 약속하고 계십니다(1~5절). 또한 이 약속을 하고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세계와 인간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6~2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는 계속되었습니다(21~28절).

우리를 모태에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근원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잊고, 이 생의 여러 가지 우상을 마음 속과 마음 밖에 새겨 만들며 그것을 섬기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애타게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사 44:6)

기도 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1~13절).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진흙인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의 역사와 주권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으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4~5절)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즉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그분의 자비와 주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22절). 하나님이 주신 길 외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전하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라는 사실과 함께 회개하지 않는 바벨론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2~13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품에 품고 자식처럼 사랑하시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3~4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우상 숭배의 결과와 그 죄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듣고 본다고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현재의 육적인 삶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멸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13절).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났고 그 구원이 지체치 않고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값비싼 보혈의 은혜를 값싼 우상이나 세상의 헛된 욕심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사 46:1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리라는 것(1~7절)과 그러한 수치를 초래한 그들의 교만(8~11절), 그리고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조소(12~15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술방식은 장례 행렬에서 사용되는 운율로 되어 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교만한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비웃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노예로 전락되고 정복자들에 의해 능욕당하는 젊은 여인으로 묘사됩니다(1절).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심판이 정치적 심판보다 선행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나 사회의 멸망은 그 내부의 붕괴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언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風靡)한 부요와 사치, 각종 우상, 패역한 성행위 등이 만연했던 제국의 멸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 우주 내의 세속적 세력에 대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처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총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사 47:4)

기도 제목 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예배와 집회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서는 한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도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무죄 같은 목과 놋 같은 이마로서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마땅히 진멸시켜야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9절).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아굽의 집은 거짓, 불의, 완악함,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죄악만 가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굽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사 48:12)

기도 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 주시고, 광명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후에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제사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사 49:3)

기도 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6절). 이 말씀은 여호와와 종의 당하는 수난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는 수난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수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수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뽑히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수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문 7절과 9절에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 1:16).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5절). ‘내 공의가 가깝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세력이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홍해가 마르게 되어 있고, 구속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사 51:5)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14절).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이 너무 상했으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일그러져서, 그의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흉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실현은 우리 주님의 삶에 눈물을 가져다줍니다. 주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으며, 생각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수염과 머리가 뜯겨졌으며, 가시관이 이마를 짓눌렀고, 채찍에 맞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너무 상하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주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상하고 찢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합 1:13). 하나님의 이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놀랐으며, 이 땅의 왕들은 주님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사 52:14)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채움 받게 하소서. ② 월 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의 낮추심과 높이 들리심이 함께 결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흠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셨던 그 입술은 죽음의 침묵 안에서 고요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발라 드렸던 머리는 가시관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두 눈에는 죽음의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던 두 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두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뿜어 내던 심장은 이제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하나가 입에서 입으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영원히 패배시키셨으며,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길목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문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 우리의 죽는 시간은 땅이 끝나고 하늘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먼저는 십자가요, 그 다음에는 면류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움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원숙하고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변론이나 공박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초점이 거트 교사나 이단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오묘한 의미와 성도의 고상한 지위 및 그 지위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알리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도의 지위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문안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미한 내용이며(1~14절),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월성이 실현되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15~23절).

특히 '예정'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행 13:48).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지적 결단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이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이미 그의 초기 서신들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과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이자 최후의 심판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사역의 일부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당신과 화해케 하셨다는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1~10절), 둘째 단락에서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케 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신 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11~22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공훈과 은총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평화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인간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5)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독특한 역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의 이중적 소외와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화해를 위하여 자신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구성과 통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며,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 나아가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어 왕좌에 앉히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확신과 송영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는 무기력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엡 3:10)

기도 제목 ①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하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과 예정, 구속, 화해 등의 교리와 함께 교회론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리와 실천은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교리처럼 그에 부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1~10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11~16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17~24절), 새로운 생활의 법칙(25~32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믿음의 삶으로써 몸소 보여 주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승리해야 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며 주도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엠피 4:15)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표준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웃과의 사랑, 개인의 언어생활 및 부부 관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그 사랑의 시작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 존재하게 되며, 또 가정을 중심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전 인류에게 미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참다운 가정의 모습은 왜곡되었고, 온갖 비정상적인 가정의 양태가 인간 세계에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심과 같이 또 교회가 주께 하듯 남편과 아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가정의 모습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22~25절). 이것은 먼저 성도들 자신의 가정의 행복은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참 가정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과 아울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투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자녀의 도리(1~4절), 종과 상전의 도리(5~9절), 성도의 영적 싸움(10~20절), 그리고 끝 인사(21~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영적 투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무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로써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투쟁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될 그날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병사의 무장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기도으로써 참여할 것을 부탁(18절)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엠피 6:13)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모든 청지기들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11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라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라

우리의 죄 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영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부정하고 패역한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진실로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 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며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참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금요일	본문	제목	초점
1030	고린도전서 11:27	합당하지 않은 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자
1106	이사야 1:2~18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	주님의 초대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1113	빌립보서 4:4~7	감사의 마음	십자가를 붙들며 참 감사의 마음을 갖자
1120	디모데전서 6:6~10	자족하는 마음	자족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자
1127	시편 103:1~5	무엇을 감사하는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합당하지 않은 태도

| 초 점 |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자

| 찬 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잔을 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으로 선고받은 자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마 26:26~32).

※ 주의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믿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합당치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주의 만찬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주의 만찬은 사랑의 연회입니다.

고전 13:2~3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_____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_____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위대한 설교,
은혜로운 찬양, 풍성한 성도 간의 교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일 4:8~9 _____

요일 5:1 _____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를 한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주의 만찬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피만이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위한 대가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인정하십니다.

마 26:28 _____

고전 11:21~22 _____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태도로 서로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 주십시오.

고전 11:31~33 /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만찬은 교회의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고전 11:29~30 / 주의 몸을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행해진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심지어 죽음까지 허락하셨다고 고린도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합당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무시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히 12:11 _____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엡 1:11 _____

롬 8:28 _____

요 9:4 _____

성찬식에 합당한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자신의 죄를 살피며, 합당치 못한 태도로 성찬을 대할 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신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 찬송가 228장의 가사를 읽고, 은혜가 되는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히 13:20~21

성찬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식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2. 성찬식에 합당한 태도로 참여하여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죄 사함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

| 초 점 |

주님의 초대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 찬 송 |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 본 문 | 이사야 1:2~18

²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³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진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 ⁷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⁸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악하고 비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눅 19:10 _____

※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그분의 자비로운 초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신 후에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불합리한 때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사 1:18 _____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깊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감사하건만, 여호와를 거역한 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 1:2~3 _____

※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사 1:4). 정말로 그들은 죄로 인하여 병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해볼 때 그들의 반항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며 서로 변론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놀랍고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목적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경건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의 경건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사 1:5~8 _____

구원과 회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 하나님의 초대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 설명해 보십시오.

사 1:9~10	
사 1:11	
사 1:13~14	
사 1:15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을 책망하시며 경건으로 돌이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사 1:16~17 / 너희는 스스로 _____ 스스로 _____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_____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_____ 학대 받는 자를 _____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_____ 하셨느니라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죄악의 때에 사람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있었 습니다.

사 1:18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 같을지라도 ☐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 같이 붉을지라도
☐☐ 같이 희게 되리라

유다 백성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갱게 씻어주 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 44:22 _____

사 53:5 _____

하나님은 죄로 이미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함께 자신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롬 8:1~2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 ☐☐의 법이 죄와 ☐☐의 법에서 너희를 ☐☐하였음이라

※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놀랍고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경건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유다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께 나아와 함께 변론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시 51:17 _____

사 55:7 /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_____ 여호와께로 _____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_____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께 울면서 나아와 자신의 잘못과 교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을 깨끗케 하십니다(요일 1:9).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계 1:5).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구역예배에 전원 참석하게 하소서

3과 감사의 마음

| 초 점 |

십자가를 붙들며 참 감사의 마음을 갖자

| 찬 송 |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 본 문 | 빌립보서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④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⑥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필수 요소이며 이미 응답된 기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 2009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 내가 진실로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만 써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감사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불평과 감사가 함께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살후 1:3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기기 때문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일이 잘되어 갈 때만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빌 4:4 / 주 안에서 항상 _____ 내가 다시 말하노니 _____

살전 5:16~18

감사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울은 고난 자체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더 많은 박해와 고통당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골 1:24

감사는 건강하게 한다

감사는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빌 4:5~6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 참된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도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안겨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스트레스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잠 17:22

※ 시편 103:2~4, 17 말씀을 읽고, 참된 감사가 나에게 주었던 구체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는 소망을 준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빌 4:7 /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_____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고,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하셨습니다.

※ 아래의 성경을 찾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셨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요 6:11	
요 11:41	
마 26:27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일 2:6 _____

※ 감사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참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하며 건강도 회복시켜 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줍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고후 9:15 _____

골 4:2 _____

감사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내부에 연합과 화목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격려합니다. 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며 참 감사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참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2.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감사로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4과 자족하는 마음

| 초점 |

자족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자

| 찬송 |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본문 | 디모데전서 6:6~10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세상 모든 사람은 만족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와 명예, 성공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아실현, 고등 교육, 훌륭한 직업, 사회봉사와 같은 고귀한 행동을 통해 잔잔하면서도 기분 좋은 충족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얻지 못합니다.

※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내가 시도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고후 3:5

어떻게 인간은 자족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자족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참 자족의 비밀을 발견해왔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세상에서 변함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왜 자족이 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히 13:5 /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_____ 그가 친히 말
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탐욕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끕니다. 반면 자족은 우리를 소유욕에
서 자유롭게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족합니다. 바울의 자족은 자
신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
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살전 5:18 _____

빌 4:11~12 _____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빈
손으로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든 거기에 자족하십시오.

딤후 6:7~8 _____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담전 6:9 /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_____
_____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슬프게도 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며 이러한 욕망은 그들을 점점 더 죄악으로 이끕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담전 6:10 _____

※ 부자 청년(눅 18:23)과 변화된 삭개오(눅 19:8~9)는 각각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돈을 좇아가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무가치한 것 때문에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씹거나 가 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 돈(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을 뺏겨 방황했던 경험이 있다면 진지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눅 19:10 _____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딤후 6:6 _____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은 욕욕에 빠지게 합니다. 평화의 왕이 없는 소유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데서 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화답할 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후 5:17 _____

약 1:17 / 온갖 좋은 와 온전한 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_____
_____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랑하는 구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골 3:17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 때 만족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할지라도 자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고민할 것이며,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 자족의 비밀 3가지를 써 보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시 107:9 _____

우리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족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2. 헛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전하게 하소서.

5과 무엇을 감사하는가?

| 초점 |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 찬송 |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 본문 | 시편 103:1~5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경 본문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독백입니다. 그는 날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자신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라고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시 103:1~2 _____

※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자신의 영혼에 되새긴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불평하지만, 다윗은 날마다 누리는 축복에 대해 감사할 것을 스스로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많은 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삶의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자

우리는 삶의 기본적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삶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딤후 6:8 _____

무엇보다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딤후 1:15 _____

※ 감사할 제목이 주위에 많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롬 8:28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_____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살전 5:18).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롬 5:3~4 _____

우리는 심지어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롬 8:29 _____

시 103:3~4 / 그가 네 모든 죄악을 _____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_____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 얻음에 감사하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후 9:15 / 말할 수 없는 그의 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 요한복음 3:16 말씀을 함께 읽고 적은 후 모두 암송하십시오.

※ 에베소서 2:8~9, 로마서 3:23~24, 6:23 말씀을 정독하신 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매순간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일 5:12~13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 영생을 주신 주님께 매순간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자신을 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모든 영역까지 감사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시 9:1 _____

계 4:9 _____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를 감사의 찬양을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더욱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의 때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⁵⁾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⁶⁾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⁷⁾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필수 요소이며, 이미 응답된 기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감사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불평과 감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감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느끼고, 기억하며, 증거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기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여러분이 만약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을 관대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 4:5). 감

사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감사와 간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들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 대한 감사는 미래의 축복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울은 고난을 믿음의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난 자체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더 많은 박해와 고통 당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감사는 건강하게 한다

감사는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21세기의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깨어진 가정, 질병, 경제적인 혼란, 환경적인 재해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여러분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된 감사는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수록 여러분은 더욱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잠언 17:22은 말씀합니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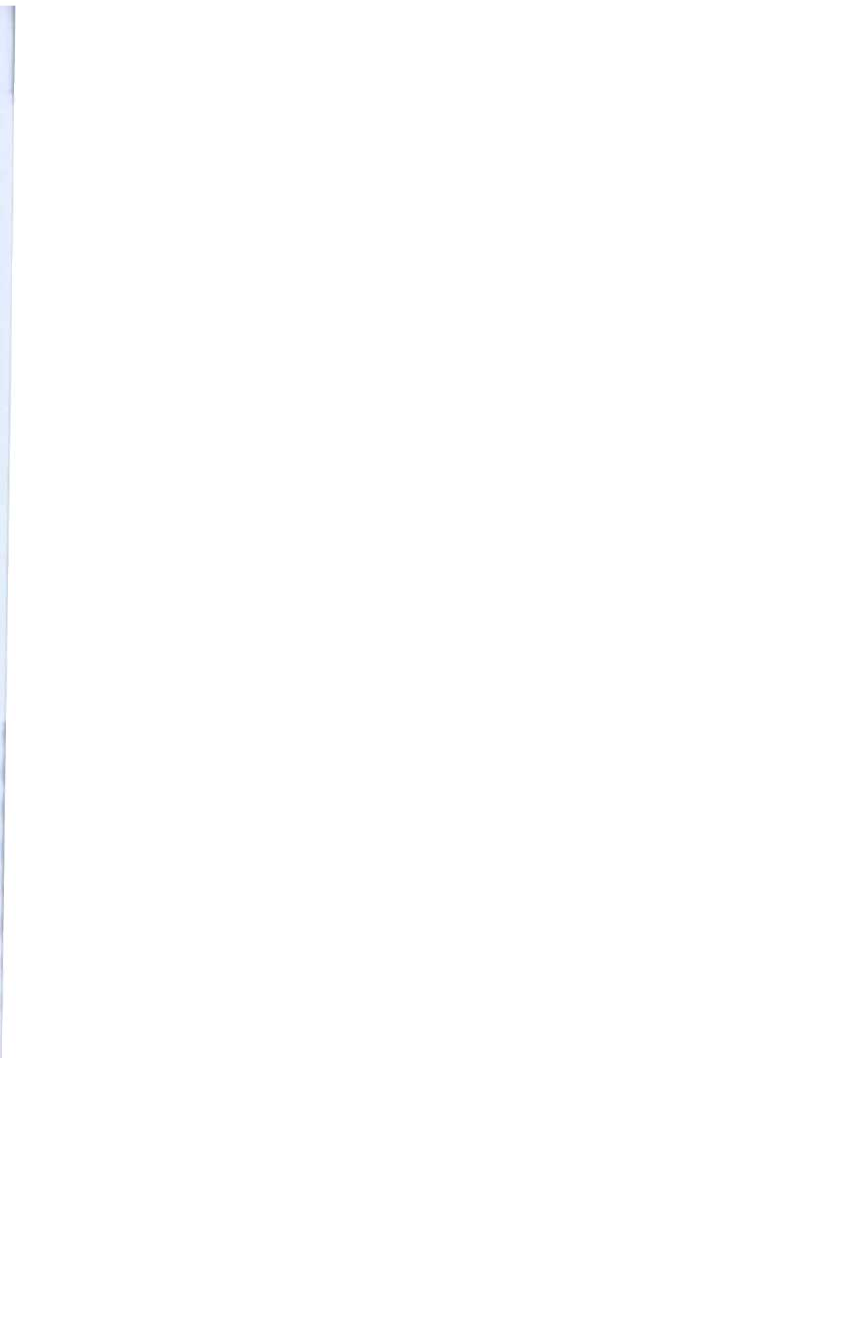
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신의 뜻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안겨 줍니다. 진실로 평안이 가득 찬 마음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스트레스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정복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시 103:17). 힘든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시편 103:2~4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감사는 소망을 준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고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십니다. 얼마 안 되는 떡과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요 6:11).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요 11:41).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마 26:27). 요한일서 2:6은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

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내부에 연합과 화목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도로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디 두리번거리며 세상적인 것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11월

Copyright ©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집필진 양재웅

발행처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